

PRAYER LETTER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기도편지



내 안에 예수만 남게 하소서.

쫓잡쫓어.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소식과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뉴스를 통하여 접합니다. 저희도 이곳 캄보디아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이곳 캄보디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도 공식적인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한국이나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그 수가 하루만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학교 휴교령, 극장, 박물관 및 술집 폐쇄 등 잇달아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프놈펜의 마트에는 사재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17일부터 모든 종교집회(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가 금지되었습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가 불교 집회 마저도 금지할 정도로 이 곳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동르싸이 교회와 캄퐁툼 교회의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심는 시간을 더욱 철저히 보내야함을 느낍니다.

안그래도 캄보디아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어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낙심도 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이 도저히 잡히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마저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말 저희에게 예수만은 확실하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라고 말로만 떠드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순간에도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히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잠깐 주춤하겠지만, 다시 새로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과하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 깨닫고 있듯이, 저희도 저희 안에 선교의 동력들이 더욱 새롭게 샘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지난 번 기도편지(2020-1)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부탁 드렸었는데, 기도편지를 보내 드린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마음을 시험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준비해놓았던 150여명 분의 과자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교회 유리창을 깨고 그것들을 모두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짓이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고가의 물건을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손해도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리창을 수리하는 동안 화가나고 속상해서 캄보디아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많이 냉담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아이들을 의심하면서 범인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러한 마음을 누르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다면, 조금도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도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던 상관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강릉교회 단기 선교팀 방문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기 전인 1월 중순에 강릉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 주셔서, 마을 어린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단체 활동들을 하면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 올 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 가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가정에는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3월 13일 셋째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모두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또한 출산을 위해 기도해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생아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잘 견딜 수 있을지 좀 예민해 질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teetotum



+855 - 10 - 231 - 502



teetotum@naver.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http://www.kehcomc.org/> 02-3459-1031~4

후원안내 : 국민은행 716690-85-856654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한웅 김미리 선교사의 교단 가상계좌입니다)